

국제원자재시장 동향 및 주요 이슈

-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초강세 지속 가능성 -

목 차

I. 원유

II. 곡물

III. 금속

(첨부)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포지션 차트

국제유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초강세 지속 가능성

김희진 | 책임연구원(3705-6225)

오정석 | 전문위원(3705-6231)

■ [국제원자재가격지수] 2월 에너지, 농산물, 비철금속 등 전부문 상승(전월말 대비)

- 에너지 비중이 높은 S&P GSCI(S&P Goldman Sachs Commodity Index) 지수는 7.9% 상승. (하위 부문별로 에너지 +8.3%, 농산물 +10.0%, 산업금속 +7.0%, 귀금속 +2.9%, 축산물 +1.8% 등). CRB(Commodity Research Bureau Index) 지수는 5.5% 상승
 - 소맥(+21.9%), 알루미늄(+11.5%), 옥수수(+11.4%), 두바이(+10.8%), 브렌트(+10.7%), 대두(+10.3%), 美 휘발유(+9.5%), 니켈(+8.8%), WTI(+8.6%) 등 대부분 품목이 상승

■ [전망]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원자재가격은 당분간 강세기조를 이어갈 전망. 다만 외교적으로 극적 해결 시 공급 불확실성이 해소되며 강세가 진정될 가능성

- 유가 : 우크라이나發 수급불안으로 당분간 \$100을 상회하는 고유가가 이어질 것이나 이란 핵협상 진전, 美 긴축 강화,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시 진정될 가능성. 타이트한 수급 상황 등 강세요인이 우세하나 이란 핵협정 복원 시 공급이 일부 개선될 여지
- 곡물價 : 우크라이나 사태로 수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며, 남미 작황도 좋지 않아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큰 상황. 소맥과 옥수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사태가 근시일 내 진정되지 못하면 가격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
- 금속價 : 재고 감소 등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發 공급차질 우려가 비철금속 가격 강세를 뒷받침할 전망.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알루미늄, 아연 가격이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 한편 금, 팔라듐, 백금 등 귀금속 가격도 강세를 이어갈 전망
- 주요 투자은행들의 원자재 가격 전망(2.28일 기준)

	2월(a) ¹⁾	'22.1Q(f) ²⁾	2Q(f) ²⁾	3Q(f) ²⁾	4Q(f) ²⁾
WTI	91.63	78 (+1)	77 (+5)	74 (+2)	72 (-)
옥수수(\$/부셸)	6.504	5.87 (-0.08)	5.63 (-0.42)	5.23 (-0.42)	5.00 (-0.50)
소맥(\$/부셸)	8.059	7.80 (-)	7.80 (+0.09)	7.30 (+0.03)	7.10 (+0.09)
구리(\$/톤)	9,900.4	9,725 (+225)	9,700 (+450)	9,400 (+104)	9,750 (+250)
알루미늄(\$/톤)	3,215.8	2,863 (+163)	2,788 (+288)	2,613 (+113)	2,525 (+25)

주: 1) 2월 평균값(average).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표 1〉 주요 원자재 가격 동향¹⁾

		'21년 평균	'22년 1~2월 평균	1/31	2/28	전월말 대비(%)	전년말 대비(%)	연중최고 ²⁾	연중최저 ²⁾
Index	CRB	209.22	253.71	255.12	269.07	+5.5	+15.8	269.07(2/28)	166.69(21.1/4)
	S&P GSCI	517.32	620.39	623.78	673.05	+7.9	+19.9	700.01(2/24)	406.51(21.1/4)
	에너지	229.53	289.93	295.33	319.75	+8.3	+26.7	334.82(2/24)	161.05(21.1/4)
	농산물	414.77	468.97	464.78	511.04	+10.0	+14.8	530.36(2/24)	365.68(21.1/4)
	산업금속	456.60	524.53	511.68	547.63	+7.0	+9.7	559.83(2/28)	379.26(21.2/2)
Oil & Gas	WTI(\$/배럴)	68.08	87.19	88.15	95.72	+8.6	+27.3	100.54(2/24)	47.18(21.1/4)
	두바이(\$/배럴)	69.01	87.74	87.53	97.02	+10.8	+26.9	99.22(2/24)	49.53(21.1/5)
	브렌트(\$/배럴)	70.95	89.73	91.21	100.99	+10.7	+29.8	105.79(2/24)	50.56(21.1/4)
	휘발유(\$/배럴)	89.13	106.72	107.28	117.47	+9.5	+25.5	122.43(2/24)	57.20(21.1/5)
	천연가스(\$/mBtu)	3.723	4.357	4.874	4.402	-9.7	+18.0	7.346(1/27)	2.414(21.1/22)
Agriculture	소맥(\$/부셸)	7.020	7.887	7.613	9.280	+21.9	+20.4	9.5125(2/25)	5.9325(21.3/31)
	옥수수(\$/부셸)	5.819	6.293	6.260	6.975	+11.4	+17.6	7.75(21.5/7)	4.795(21.1/4)
	대두(\$/부셸)	13.747	14.919	14.905	16.443	+10.3	+23.7	17.65(2/24)	11.7125(21.11/9)
	쌀(\$/cwt)	13.34	14.85	15.06	15.37	+2.0	+5.0	15.58(2/2)	12.21(21.6/17)
	원당(\$/파운드)	17.88	18.34	18.22	18.00	-1.2	-4.7	20.69(21.11/18)	14.67(21.3/31)
Metals	금(\$/온스)	1,799.0	1,837.6	1,797.2	1,909	+6.2	+4.4	1,974.34(2/24)	1,676.89(21.3/8)
	구리(\$/톤)	9,293.5	9,827.4	9,506	9,883.5	+4.0	+1.7	10,747.5(21.5/10)	7,705(21.1/28)
	알루미늄(\$/톤)	2,485.9	3,109.1	3,021	3,368.5	+11.5	+20.0	3,525(2/28)	1,945(21.1/19)
	니켈(\$/톤)	18,466.9	22,835.8	22,328	24,282	+8.8	+17.0	25,705(2/24)	15,665(21.3/9)
	아연(\$/톤)	3,007.3	3,592.2	3,586	3,666	+2.2	+3.7	3,944(21.10/15)	2,546.5(21.2/2)
	납(\$/톤)	2,189.4	2,305.1	2,244.5	2,387	+6.3	+3.6	2,452.5(21.10/25)	1,908(21.3/18)
	주석(\$/톤)	31,172.4	42,548.5	43,023	45,224	+5.1	+16.4	45,880(2/24)	20,380(21.1/4)
친환경에너지 관련 품목									
Solar	폴리실리콘(\$/kg)	24.57	31.81	32.15	33.05	+2.8	+13.3	35.81(21.10/20)	10.57(21.1/4)
Batteries	코발트(\$/톤)	51,577.1	71,333	71,000	74,000	+4.2	+5.0	74,000(2/24)	34,000(21.1/4)
Renewable	에탄올(\$/갤런)	2.11	2.16	2.16	2.16	-	+1.1	2.48(20.6/1)	1.338(21.1/4)
CO ²	탄소배출권(€/톤)	53.63	87.45	88.89	81.82	-8.0	+2.0	97.88(2/8)	31.28(21.1/18)

주 : 1) WTI 및 휘발유, 천연가스는 NYMEX 근월물 가격, 브렌트유는 ICE 근월물 가격, 두바이유는 현물가격, 농산물은 CBOT, ICE 근월물 가격, 금속, 코발트는 LME 근월물 가격(금은 현물가격), 폴리실리콘은 PV Insights의 All Grades 주간 평균 현물가격, 탄소배출권은 ICE 근월물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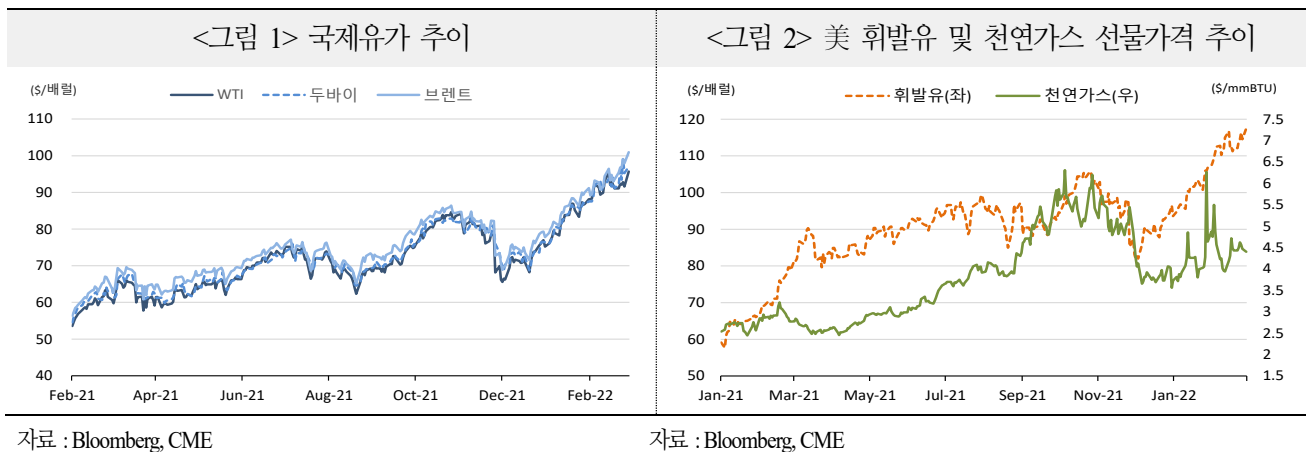
2) 연중 최고 및 최저는 '21년 1월 4일부터 '22년 2월 28일까지 장중가격 기준. 적색은 전월중 기준 기록 경신을 의미.

자료 : Bloomberg

I. 원유

□ [동향] 2월 국제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100 돌파

- ICE 브렌트유 선물가격, 2.28일 \$100.99로 전월말 대비 +10.7%
 - 美 연준의 긴축, 이란 핵협상 복원 등 하방요인에도 불구하고 위드코로나 정책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완화, 글로벌 재고 감소세 등 기존 상승요인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가세하며 '14년 7월 이후 첫 세자릿수 기록
 - 美 휘발유도 유가 급등으로 동반 초강세(\$117.47, +9.5%). 美 천연가스는 계절적 비수기 진입 등으로 하락(-9.7%)했으나 유럽 천연가스는 급등(+15.4%)



□ [주요 변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란 핵협상, 수급 및 재고 상황 등

〈표 2〉 강세/약세 요인별 구분

강세 요인	약세 요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재고 감소 등 타이트한 수급	美 연준 금리인상 임박 이란 핵협상 진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공급불안 증폭

- 러시아는 세계 3위 원유 수출국(세계 생산의 11%), 천연가스 생산 세계 2위 · 수출 및 매장량 세계 1위. 유럽 가스 수입의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20%는 우크라이나를 경유. 원유의 경우 對유럽 운송분의 10%가 우크라이나를 경유(UBS)
- 현재까지 미국 주도 對러 제재에서 에너지 부문은 제외되었으나, 일부 러시아 은행 SWIFT 차단 조치 등으로 러시아산 원유거래가 감소. 러시아-우크라이나 갈등 장기화 시 에너지 수급 전반의 공급차질 우려가 증폭될 소지

- 공급부족 우려 해소를 위해 IEA는 비축유 6,000만배럴 방출(미국이 3,000만배럴 약속)에 합의. 다만 방출규모가 적어(러시아 6일치 생산량) 시장에서는 공급부족 해소에 부족 평가
 - 美 원유재고와 OECD 재고 지속적인 감소세
 - 美 재고는 '20년 7월부터 감소세를 지속해 2.18일 기준 4.16억배럴로 전년도 고점 대비 -23%. OECD 재고는 금년 1월 기준 26.76억배럴로 팬데믹이 시작된 '20년 고점 대비 -16.7%, 과거 5년 평균(29.34억배럴)을 8.8% 하회(EIA)
 - 이란 핵협상 타결은 유가 하방요인
 - 이란과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러시아 등 핵 협정(JCPOA) 참여국들은 최종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시사. 핵 협정 복원 시 이란제재 완화로 시장에서는 일일 100~130만배럴의 원유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
 - 이란 핵 합의 타결은 유가를 \$10~15 정도 낮추는 효과(BoA)
 - 美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으로 위험자산 투자심리 위축 소지
 - 미국 3월 FOMC 금리인상을 선반영해 WTI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2.22일 4.0억배럴(지난해 10월 중순 이후 -16.9%)로 1월 중순 이후 감소세
- [전망] 우크라이나궤 수급불안으로 당분간 세자릿수 유가가 유지될 전망. 다만 이란 핵협상 타결, 美 긴축 강화,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 등의 경우 초강세가 진정될 가능성
- 우크라이나 사태로 \$100을 상회하는 고유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시장 일각에서는 \$150까지도 전망
 - 독일은 노르드스트림2 승인을 일시적으로 중단. 미국, EU, 영국 등은 러시아에 대한 금융제재를 강화했으나 에너지 수급 차질을 우려해 러시아산 원유수출은 허용. 캐나다는 러시아산 원유수입을 전면 금지(2.28일 발표)
 - 이번 사태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 국한된 사태로 그칠 경우 유가는 10% 상승 효과에 그칠 수 있으나 심각한 사태로 확대될 경우 40% 급등 가능성(MUFG)
 - 다만 외교적 해결 시 지정학적 리스크 프리미엄 감소로 유가는 그 간의 상승분을 다소 반납할 가능성. 우크라이나 사태, 타이탄 수급상황 등 강세요인이 우세하나 이란 핵협정이 복원된다면 공급이 일부 개선될 여지

〈표 3〉 주요 투자은행들의 국제유가 전망(\$/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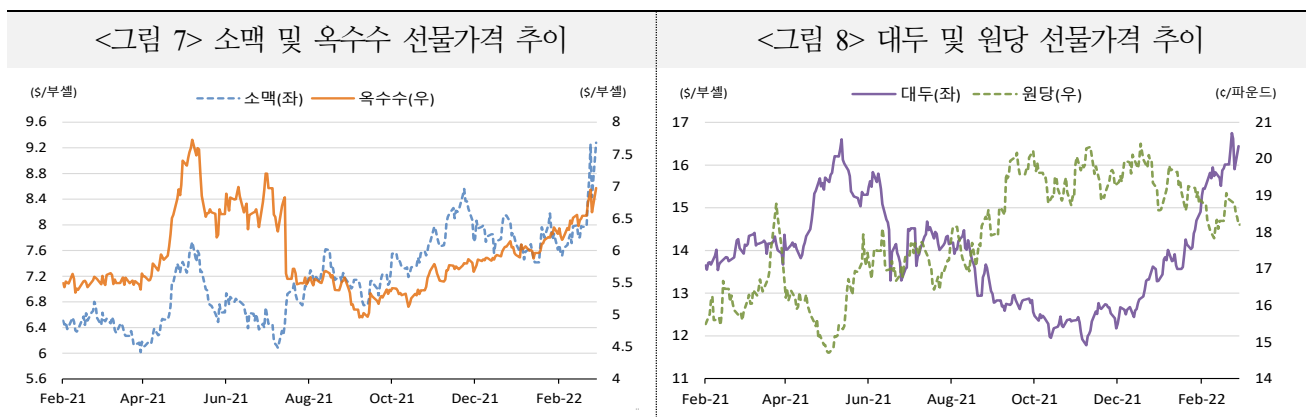
	2월(a) ¹⁾	'22.1Q(f) ²⁾	2Q(f) ²⁾	3Q(f) ²⁾	4Q(f) ²⁾
WTI	91.63	78 (+1)	77 (+5)	74 (+2)	72 (-)
브렌트	94.10	80 (+1)	79 (+4)	76 (+2)	74 (-)

주: 1) 2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II. 곡물

□ [동향] 2월 주요 곡물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일제히 상승

- 2.28일 CBOT 소맥 선물가격은 \$9.28(전월말 대비 +21.9%)로 10년래 최고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흑해산 소맥 공급차질 우려가 증폭하며 월 후반 '12년 이후 처음으로 \$9 상회
 - 옥수수과 대두도 소맥 강세 영향과 남미 작황 악화, 농업생산비용 급등 등으로 전월말 대비 +11.4%, +10.3%. 남미 영향이 특히 큰 대두는 최근 2개월간 +24%



자료 : Bloomberg, CBOT

자료: Bloomberg, CBOT

□ [주요 변수] 우크라이나 사태, 남미 생산 전망, 농업생산비용, 투기동향 등

- 소맥 생산대국(20/21년 기준 러시아 수출 1위, 우크라이나 5위. 양국 합쳐서 세계 수출의 30% 차지)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으로 공급차질 가능성 확대
 - 사태 장기화 시 우크라이나의 봄밀 파종(2-4월)에 차질이 발생하여 궁극적으로 금년 생산이 부진할 가능성. 무력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에서의 곡물 선적이 중단되고 있다는 점도 글로벌 공급의 우려 요인
 - 금년 러시아의 소맥 수출이 전년도에 비해 10% 감소될 것으로 예상(USDA)되는 상황에서 서방의 제재가 겹침에 따라 수출 전망치의 하향조정이 잇따를 소지
 - 이런 가운데 세계 소맥수요는 중동 및 북아프리카, 아시아를 중심으로 견조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
-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금년 옥수수 및 대두 생산에 대한 부정적 전망 지속
 - 가뭄 등 농업기상여건 악화로 '21/22년 아르헨티나의 대두 생산은 핵심지역인 중부에서만 14년래 최저치를 기록할 전망(Rosario Grains Exchange)

- 아르헨티나 전체 대두 생산전망은 당초 4,500만톤 → 4,050만톤으로 대폭 하향
- 브라질은 대두 생산전망이 하향조정(1월 51.6억부셀 → 2월 46.1억부셀, -11%) 되었지만 역대 두번째로 많은 규모(Conab). 다만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고 북부에는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작황부진이 우려되는 상황
- 옥수수 생산전망도 1.129억톤 → 1.123억톤으로 소폭 하향. 추후 추가 하향 소지
- 우크라이나 사태는 비료가격 등 농업생산비용의 상승도 초래할 가능성
 - 러시아는 세계 최대 비료 수출국 중 하나이며, 브라질, EU, 미국 등이 러시아산에 크게 의존. 특히 봄 파종을 앞둔 유럽은 러시아산 질소비료가 매우 중요한 상황
 - 서방은 러시아의 비료 수출에 대해 아직 제재를 가하지 않았으나, 천연가스 가격 급등 등의 영향으로 국제비료가격이 이미 크게 올라선 상황에서 추후 이 부문에 대한 서방의 제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농업생산비용의 추가 상승이 우려
- 옥수수와 대두의 투기 순매수포지션 증가
 - CBOT 옥수수 선물옵션의 비상업 순매수포지션은 2.22일 43.4만계약으로 1월 중순 이후 16% 증가. 대두의 순매수 포지션도 26.1만계약으로 67% 급증. 남미 작황 우려로 투기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
 - 소맥 선물옵션의 순매수포지션은 금년 들어 마이너스를 유지.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의 향방에 따라 큰 폭의 (+)로 전환될 가능성에 유의
- [전망]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으로 국제곡물 수급에 큰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남미 작황도 좋지 않아 곡물가격은 그 어느 때보다 큰 변동성에 직면
- 소맥과 옥수수는 우크라이나 사태의 직접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사태가 빠른 시일 내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면 가격의 추가 상승은 불가피
- 곡물 수급 차질 및 가격 상승이 장기화 되면 중동·아프리카·아시아의 식량위기(Food Crisis)와 사회불안을 초래할 가능성도 점증

〈표 4〉 주요 투자은행들의 곡물 가격 전망(\$/부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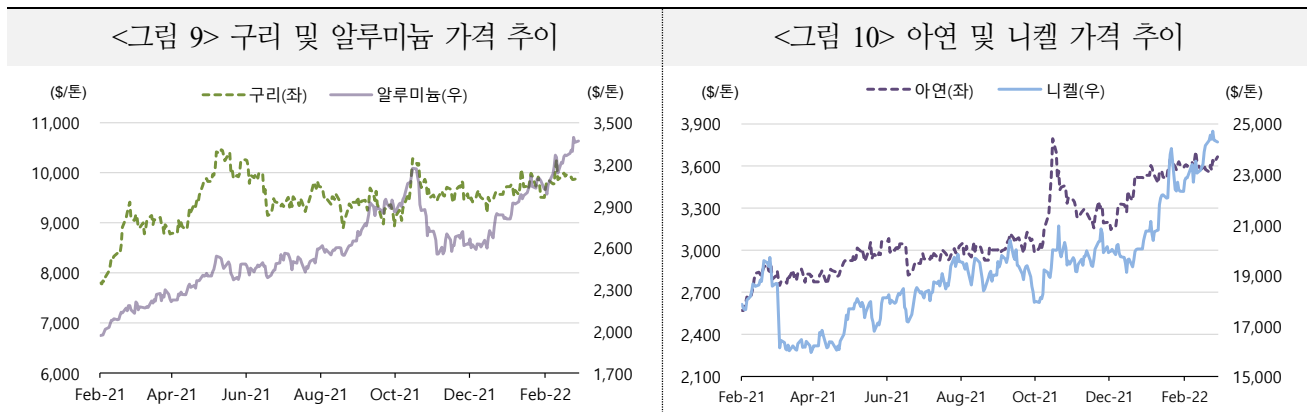
	2월(a) ¹⁾	'22.1Q(f) ²⁾	2Q(f) ²⁾	3Q(f) ²⁾	4Q(f) ²⁾
옥수수	6.504	5.87 (-0.08)	5.63 (-0.42)	5.23 (-0.42)	5.00 (-0.50)
소맥	8.059	7.80 (-)	7.80 (+0.09)	7.30 (+0.03)	7.10 (+0.09)
대두	15.886	12.89 (-0.11)	12.13 (-1.37)	11.60 (-0.90)	11.40 (-0.60)

주: 1) 2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III. 금속

□ [동향] 2월 비철금속 가격은 대부분 상승

- LME 니켈 선물가격, 2.28일 톤당 \$24,282(전월말 대비 +8.8%)로 10년래 최고치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본격화에 따른 공급차질 우려, 재고 감소, 전기차 판매 호조에 따른 배터리 수요 확대 등으로 상승세 지속. 구리는 타이탄한 수급, 페루 광산의 도로봉쇄 지속, 중국 인민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4.0% 상승
 - 알루미늄은 중국 광시성에 부과된 봉쇄령으로 제련소 생산이 줄어들며 13년래 최고치(+11.5%). 주석은 유로존 공급부족 지속, 중국 춘절 이후 소비 증가에 따른 재고 감소 등으로 상승(+5.1%)
- 금 가격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safe haven 인식으로 상승(\$1,909, 전월말 대비 +6.2%)



자료: Bloomberg, LME

자료: Bloomberg, LME

□ [주요 변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잠재적 공급차질, 품목별 이슈 등

- 러시아는 금속자원 대국으로서 글로벌 공급망(GVC)에서 중요한 역할
 - 러시아의 비철금속 생산량은 전세계의 5~1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알루미늄 수출은 세계 2위, 니켈은 세계 11위. 팔라듐 등 귀금속 생산도 독보적
 - 품목별로 글로벌 생산량 대비 러시아의 비중은 팔라듐(45.6%), 플래티늄(15.1%), 금(9.2%), 니켈(5.3%), 알루미늄(4.2%), 구리(3.3%), 은(2.6%) 등(JPM)
 - 러시아가 국제원자재시장에 미치는 영향력(exposure)이 큰 품목은 팔라듐, 야금용·발전용 석탄, 플래티늄, 니켈, 알루미늄, 철강, 구리, 아연 順(UBS)
- 금 : 지정학적 불안 시기 “안전자산” 및 “저변동성” 자산으로 다시 부각
 - 우크라이나發 지정학적 불확실성, 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로 단기적으로 강세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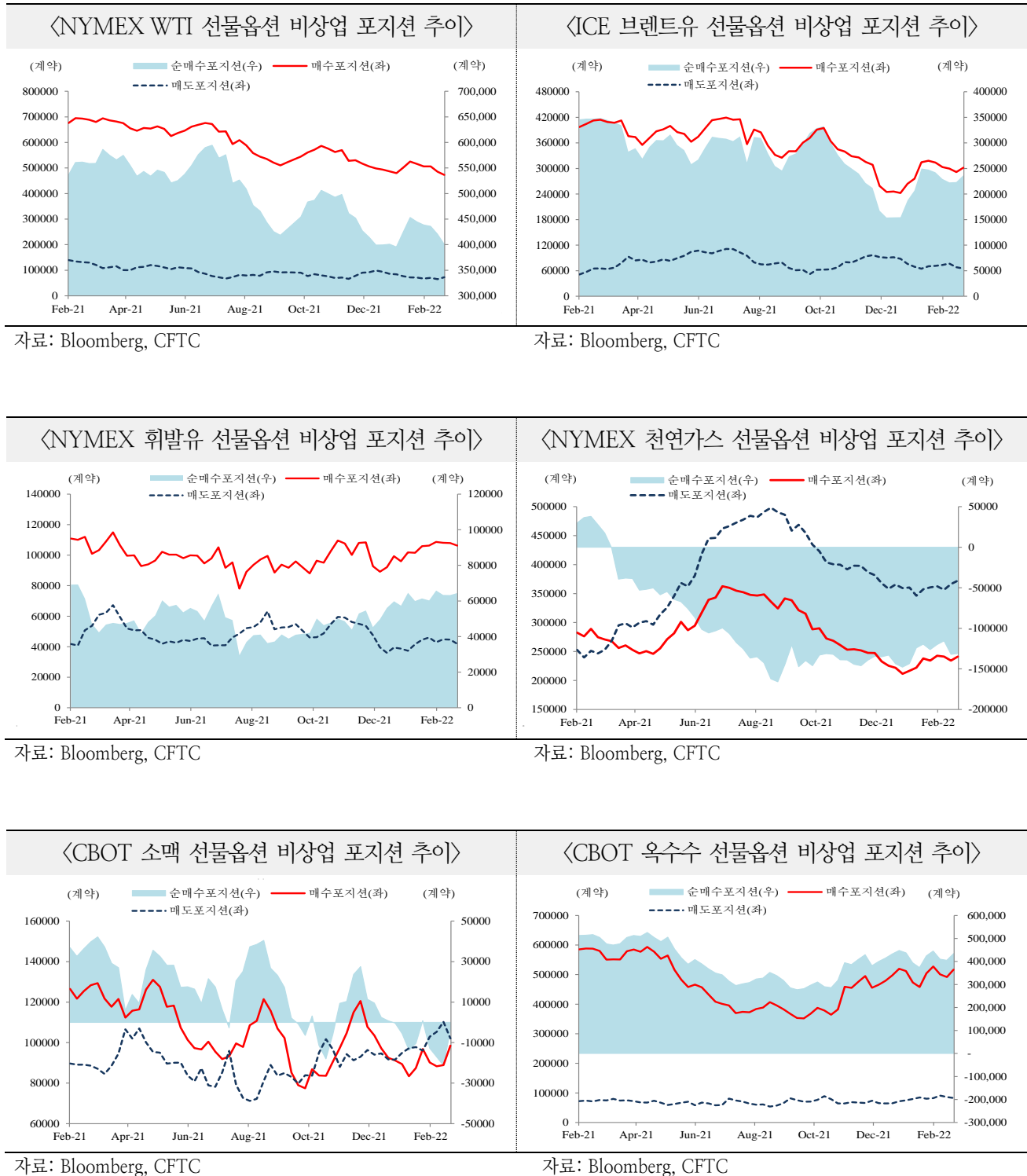
- 니켈 : 러시아發 공급차질 가능성. 재고는 11개월째 감소
 - 러시아는 세계 니켈 생산량의 5.3%를 담당. 미국이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경우 대부분 수출물량이 미국이 아닌 중국으로 향할 가능성
 - '19년 러시아의 對유럽 니켈 수출은 국가 전체 수출의 약 34%를 차지했으며 '20년에는 39%로 증가. 미국으로의 니켈 수출은 '19~20년 약 5~6%를 차지(SMM)
 - LME 재고는 2월 중순 8.3톤(전주대비 -0.9%)으로 작년 4월말부터 43주 연속 감소. 연초부터 감소하는 추세이나 3월 이후 점진적 증가세로 전환할 가능성(Mining.com)
 - 알루미늄 : 유럽 제련소 감산 가능성. 중국 봉쇄령으로 공급차질 발생
 - 에너지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경우 유럽 알루미늄 생산능력(capacity)이 추가로 연간 40만톤 줄어들며 일시적 공급부족 발생 소지(Wood Mackenzie)
 - '18년 미국의 러시아 Rusal 社 제재가 가격상승 및 공급에 차질을 초래한 바 있음
 -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中 광시(廣西)성 바이세(Baise)시에 부과된 봉쇄령으로 인해 220만톤의 알루미늄 생산이 축소(Shanghai Metals Market)
 - 구리 : 수요 증가 및 재고 부족. 남미 공급 불확실성 증가
 - LME 재고는 2월 중순 7.0만톤으로 '05년 이후 최저치. 중국의 경제 정상화 및 수요회복으로 단기 재고량이 역대 최저치로 감소할 가능성(CRU Group)
 - 칠레, 페루, 콩고 등 주요 광산의 1차 생산(primary production)이 향후 2년 내 감소할 것이며, 금년 세계 수급은 19.7만톤의 공급부족 예상. 한편, 칠레(1위 생산국)는 의회에 제출된 광산 사용료 법안으로 최대 100만톤 감산 가능성(GS)
- [전망] 수급이 타이트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發 공급차질 우려가 금속가격 강세를 뒷받침할 전망.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라 알루미늄, 아연 가격이 추가 상승할 소지
- 산업 핵심소재인 구리는 전기차, 전력망 등 관련 수요가 견조한 가운데 제한적인 광산 공급량, 중국 부동산 시장의 하방리스크 완화 등으로 가격이 장기적으로 추가 상승('22년 연평균 톤당 \$11,875, '23년 \$12,000, '25년 \$15,000)할 여지(GS)

〈표 5〉 주요 투자은행들의 주요 기초금속 가격 전망(\$/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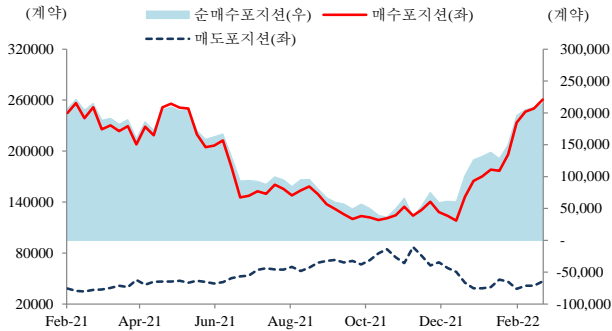
	2월(a) ¹⁾	'22.1Q(f) ²⁾	2Q(f) ²⁾	3Q(f) ²⁾	4Q(f) ²⁾
구리	9,900.4	9,725 (+225)	9,700 (+450)	9,400 (+104)	9,750 (+250)
알루미늄	3,215.8	2,863 (+163)	2,788 (+288)	2,613 (+113)	2,525 (+25)
니켈	23,595.1	20,770 (+503)	20,325 (+325)	20,275 (+1,025)	19,500 (-)
아연	3,609.9	3,450 (+150)	3,350 (+150)	3,108 (+108)	3,103 (+28)

주: 1) 2월 평균값 2) 최근 3개월 주요 기관 전망치의 중간값(median), (-)는 전월말 전망치 대비 등락. 자료: Bloomberg

(첨부) 주요 원자재 선물옵션 비상업(Non-commercial) 포지션 Cha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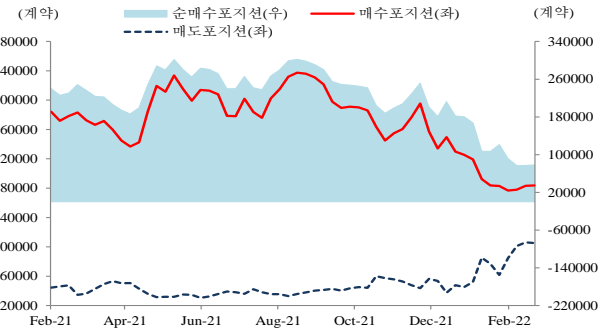


〈CBOT 대두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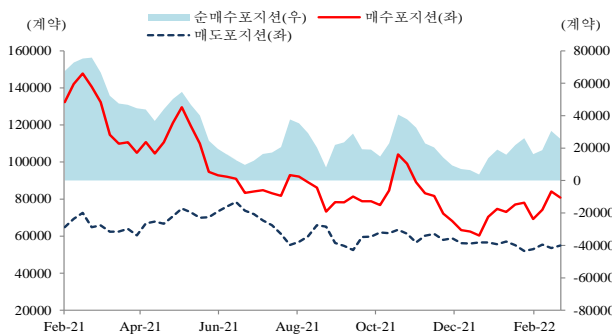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ICE 원당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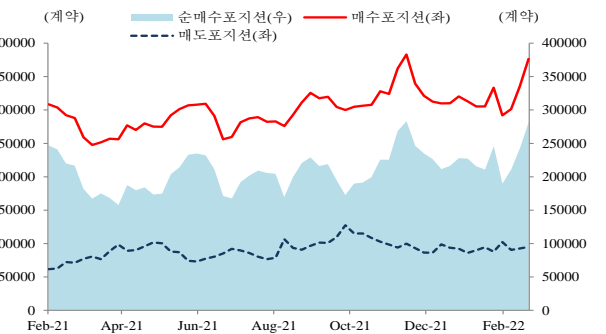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구리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COMEX 금 선물옵션 비상업 포지션 추이〉



자료: Bloomberg, CFTC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보고서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국제금융센터는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5 혹은 kimhj@kcif.or.kr, 홈페이지: www.kcif.or.kr